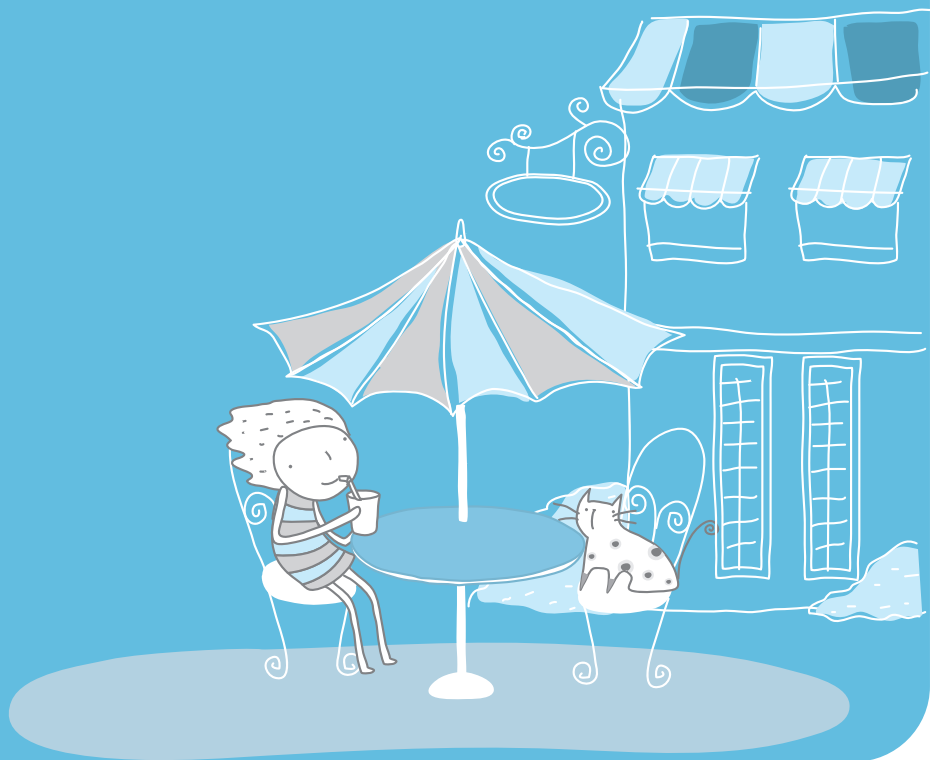


정답 및 해설



- ➔ 3년 예상문제 15회
- ➔ 2년 예상문제 6회
- ➔ 1년 예상문제 6회



3년

1회

03 ~ 04쪽

1. ③ 2. 공감각적 심상 3. ㉠ : 의견, ㉡ : 이익 4. ② 5. ②, ⑤
6. 거미 가족의 재회 7. ② 8. 막역지간 9. ④ 10. ① 11. ④
12. 피꼬리 13. ④ 14. ② 15.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로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16. ②

1. 현대시는 주로 내재율이 잘 드러나는데 정형시보다 자유로운 형태의 자유시를 많이 쓰기 때문이다.
2. ㉠은 청각의 시각화
㉡은 촉각의 미각화
3. 이해관계가 달라서 생길 수밖에 없는 의견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개인 및 집단 서로에게 이익(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 협상의 역할이다.
4. 시적 화자는 방 안의 거미를 문밖으로 끌어내려 버림으로 거미 가족을 해체해 버리고 있다.
5. 춥고 어두워서 위험하지만, 앞서 끌려나간 가족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6.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거나 했으면 좋으련만'이라는 내용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알 수 있다.
7. [가]에서는 '거미'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지만, [나]에서는 의원에 대한 연민은 드러나지 않는다.
8. 서로 거스르지 않는 사이라는 뜻으로, 허물이 없는 아주 친한 사이를 이르는 말이다.
9. 여음구로 음악적 리듬감을 더할 뿐이지, 의미를 강조하거나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10. 1연 - 임과의 이별 상황(원망)
2연 - 임과 이별한 슬픔의 고조(좌절)
3연 - 감정의 절제와 체념
4연 - 재회에 대한 기원
11. 시적 화자는 이별을 받아들이고,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재회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12. 피꼬리는 화자에게 실연의 슬픔을 환기시키는 존재이다.
13. [가]의 마지막 연에는 재회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지만, [나]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14. 모든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과 비교해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15. 협상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대의 처지와 요구 사항을 이해하며, 자신이 양보할 것과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
16. [보기]는 이해하기 단계에 대한 설명이다.

Plus a !

협상의 절차

‘진단하기 → 대응하기 → 이해하기 → 문제 해결하기’의 4단계이다.

2회

05 ~ 06쪽

1. ① 2. ⑤ 3. ⑤ 4. ④ 5. ① 6. 1인칭 주인공 시점 7. ⑤
8. ④ 9. ⑤ 10. ④ 11. ① 12. ② 13. ⑤ 14. ③ 15. 비판적
16. ㉠

1. 소설은 인간과 인간 사회의 진실을 추구하는 이야기인 진실성을 가진다.
2. ⑤는 희곡의 특징이다.
3. 논설문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성으로 글쓴이의 의견을 펼친다.
4. 문학 작품은 당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탕으로 작가가 재창조한 세계이다.
5. 엄마가 현저동으로 가기 위해 지게꾼과 짐삿을 흥정하는 것이다.
6. 주인공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으로, ‘나’의 내면 세계 묘사가 잘 나타나 있다.
7. 지게꾼이 경멸의 표정을 지은 것은 가난함에 대한 무시가 아니라 엄마의 흥정 속셈 때문이다.
8. 엄마는 노인 대접하여 일거리를 준 것에 생색을 낸 것이다.
9. ㉡는 산업화가 시작되던 1970년대에 널리 사용된 용어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다.
10. 구동네와 새 동네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던 1970년대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11. 아버지는 새 동네가 생긴 것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는다.
① 표리부동 : 겉과 속이 다름.
② 동상이몽 :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함.
③ 마이동풍 : 남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고 그냥 지나쳐 흘려 버림.
④ 타산지석 :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 또는 허물과 실패까지도 자신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됨.
⑤ 설상가상 : 어려운 일이나 불행이 겹쳐서 일어남을 비유함.
12. 새 동네가 들어서면서 구멍가게 주인들이 좋아하게 되었다는 내용만 있을 뿐 새 가게가 들어섰다는 내용은 없다.
13. 논증하는 글을 읽을 때는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하며 읽을 것이 아니라, 주장의 타당성, 근거의 객관성을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읽어야 한다.
14. 왜 답이 되지 않을까?
⑤ 불치 환자의 예를 들어 과학적 지식이 정보를 제공할 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결론은 내려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15. 글쓴이는 현대 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학적 지식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멀리하는 지식인들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16. 글쓴이는 현대 사회의 지식인들이 과학을 싫어하거나 피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3회

07 ~ 08쪽

1. (1) 1인칭 관찰자 시점 (2) 전지적 작가 시점 2. ② 3. ① 4. ③
5. ② 6. ④ 7. ③ 8. 내려오는 사또마다 빠짐없이 명관이로구나!
9. ② 10. ② 11. 추악한 박씨 12. ③ 13. ③ 14. ④ 15. ③
16. ④

1.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으면 1인칭 시점, 작품 밖에 있으면 3인칭 시점이다.
2. 흥 판서와 길동이 우연히 마주치는 장면이다.
3. 포럼은 토의자가 강연을 하고 청중과 직접 의견을 교환하는 토의 형태로 토의자와 청중, 청중과 청중 간의 의견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4. 고전 소설의 등장인물은 성격이 대부분 전형적이고 평면적인 인물이 등장한다.
5. 탐관오리인 본관 사또를 어사또 암행어사가 징벌하여 봉고파직 시켰다.
6. '바람, 눈, 가을'은 춘향 앞에 닥친 고난과 시련을 의미한다.
7. 춘향의 지조가 강조되고 있다.
③은 일편단심
❷ 왜 답이 되지 않을까?
①은 자연 친화
②는 가을 달밤의 풍류
④는 부모에 대한 효도
⑤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였다.
8. 본래의 뜻과는 반대되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 뒤에 숨은 반대의 뜻을 강조하는 것을 반어적이라고 한다.
9. 이 상공은 박씨의 재주와 덕행이 뛰어남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10. 계화는 박씨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녀를 어질다고 생각한다.
11. 시어머니는 외모가 추하다는 이유만으로 박씨를 업신여긴다.
12. [나]의 상공의 말에서 박씨가 재주가 신통하고 덕행이 뛰어남을 알 수 있다.
13. 남의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14. 심포지엄은 하나의 논제를 여러 측면으로 나누어 각 측면의 전문가들이 각자의 관점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방식이다.
❷ 왜 답이 되지 않을까?
①, ②, ③, ⑤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토의 주제가 아니다.
15. 패널 토의는 각 의견의 대표자가 먼저 토의를 한 후 청중이 참여하는 토의 형태로 다양한 결론이 예상되는 논제를 토의하는 데 적합하다.
❸ 왜 답이 되지 않을까?
①은 포럼, ②, ④는 심포지엄, ⑤는 원탁 토의이다.
16. 가치 논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의 내용을 다룬다.
❸ 왜 답이 되지 않을까?
①과 ⑤는 사실 논제,
②와 ③은 정책 논제의 구성 방법이다.

4회

09 ~ 10쪽

1. ⑤ 2. ② 3. ③ 4. ① 5. 자존심, 고지식, 지조 6. ① 7. ①
8. ④ 9. ③ 10. ⑤ 11. ④ 12. ④ 13. 어린 시절의 놀이를 통해 온갖 꿈을 꾸었고, 서로 두터운 정을 나눌 수 있었다. 14. ③ 15. ③
16. ④ 17. ④

1.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을 글로 표현한 것이므로 주제와 글쓴이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2. 글쓴이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과 비교해 가며 읽는다.
3.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말소리의 최소 단위로, 자음과 모음이 이에 해당한다.
4. 남산골샌님은 집안 살림살이에 아랑곳하지 않아 극도로 궁핍하게 살았지만 청렴결백을 생명으로 여기며 살았다.
5. 마지막 부분에 세 가지가 드러나 있다.

6. 융통성 없는 고지식함은 딸깍발이의 특징이다.
7. 글쓴이는 딸깍발이의 의기와 강직함을 배우되, 지나치게 청렴한 미덕은 분간을 하여 가며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8. '딸깍발이'는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선비인 '남산골샌님' 양반을 가리키는 말이며, 이들의 업적을 설명하고 있지도 않다.
9. 독자를 설득하는 것은 주장하는 글에 해당한다.
10. '나'는 어린 시절, 온몸이 땀과 먼지에 젖을 정도로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는 장난꾸러기였다.
11. 놀 시간이 별로 없고, 시간이 있어도 친구들과 몸을 부딪치며 신나게 노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서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한다고 하였다.
12. 수필을 읽을 때는 글 속에 담긴 가치 있는 체험에 공감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13. [라]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있다.
14. 음운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동일한 소리로 인식된다. 사람마다 다르게 발음하는 것은 음성이다.
15. 국어의 자음은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의 움직임 여부에 따라 나눈다.
16. 센입천장에서 소리 나는 음운은 '스, 썩, 츠'이다.
❷ 왜 답이 되지 않을까?
① 여린입천장에서 나는 음운
②·⑤ 혀끝에서 나는 음운
③ 입술 사이에서 나는 음운

17.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둥글게 변하는 음운은 원순 모음으로 'ㅛ, ㅜ, ㅠ, ㅡ'가 속한다.

❁ Plus α !

평순 모음 :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하지 않고 소리 내는 음운으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가 속한다.

5회

11 ~ 12쪽

1. ⑤ 2. ④ 3. ③ 4. ④ 5. ② 6. ⑤ 7. 한 늙은이가 철쭉꽃을 꺾어 바친. 8. ⑤ 9. ④ 10. ③ 11. ③ 12. 어머니의 답답한 심정을 행동을 통하여 비언어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13. ① 14. ②
15. ② 16. ㉠

1. 시인은 시적 화자를 내세워 정서를 전달한다.
2. ④는 소설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한 설명이다.
3. 운율은 시의 형식적 특징으로, 작품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드러내는 역할과는 관련이 없다.
4.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을 노래한 작품으로 시대적 현실과는 관련이 없다.
5. 임이 떠나는 길에 바치는 화자의 사랑과 정성인 동시에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대변하는 소재이다. 임과 이별하는 상황이므로, 화자의 행복했던 과거를 암시한다고 볼 수는 없다.
6.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슬퍼하면서도 임을 원망하기보다는 슬픔을 참고 견뎌으로써 임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을 승화시키고 있다.
7. 수로 부인이 꽃을 원한 것은 사건의 원인이 되며 지나가던 늙은이가 그 꽃을 꺾어 바치는 것이 중심 사건이다.



8. ‘한 늙은이가 암소를 몰고 지나가다’라는 구절을 통해 수로 부인에게 직접적인 목적이 있어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9. 이 글은 주인공인 ‘나’가 서술자인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10. 이 글은 도시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정부의 주도로 일방적으로 전개된 도시 재개발이 이루어진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삶의 터전을 빼앗긴 도시 빈민의 궁핍한 삶과 좌절된 꿈을 주제로 하고 있다.
11. 1970년대는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유함의 상징이었다.
13. ‘아파트’는 행복동 주민에게는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대상이므로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용할 수 없거나 차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Plus a !

- 그림의 떡 :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용하거나 차지할 수 없는 경우
 - 누워서 떡 먹기 : 하기가 매우 쉬운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그물에 든 고기 : 이미 잡힌 몸이 되어 벗어날 수 없는 신세
 - 우물 안의 개구리 : 넓은 세상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우물에서 송눈 찾기 : 모든 일은 절차와 결과가 있는데 급히 서두른다는 말
14. 이 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희망, 화자의 긍정적인 가치관이 드러난다.
15. ㉠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 역설적 표현이다.
㉡는 반어적 표현이다.
- Plus a !
- 역설법 : 표면적으로는 모순되거나 부조리하게 보이지만, 표면적인 진술 너머에는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수사법
예) 임은 갓지만 나는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반어법 : 참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화하는 수사법,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로 표현하는 것
예)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16. ‘독자’의 입장에서 감상 후 느낄 수 있는 감동, 깨달음 등을 근거로 해석한 것이다.

6회

13 ~ 14쪽

1. ④ 2. ④ 3. 언어의 사회성 4. ④ 5. ⑤ 6. 달밤, 메밀꽃 7. ② 8. 봉평 9. ④ 10. ② 11. ④ 12. ④ 13. 다들 먹고살아 보려고 아옹다옹하는 것이니 14. 기호성 15. ⑤ 16. ③

1. 소설은 작가가 있음직한 일을 상상하여 쓴 글이다.
2. 소설은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재구성한 이야기이므로 사실성을 판단하며 읽는 것은 바람직한 감상 방법이 아니다.
3. 동수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힘들 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의 특성을 사회성이라고 한다.
4. ‘메밀꽃 필 무렵’은 장돌뱅이의 삶의 애환과 혈육의 정을 나타낸 단편 소설이고, ④는 시에 대한 설명이다.
5. 허생원과 성 서방네 처녀와의 인연은 시대적 상황으로 인한 가족 공동체의 붕괴와는 거리가 멀다.

Plus a !

과거와 현재의 이중적 구성

과거	달밤 (매개체)	현재
인물 : 허생원, 성 처녀 배경 : 달밤의 봉평 물방앗간 주제 : 인간 본연의 애정		인물 : 허생원, 조 선달, 동이 배경 : 달밤 아래 대화로 가는 길 주제 : 인간의 혈육의 정

6. 메밀꽃이 핀 달밤은 허생원이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꿈꾸게 하는 배경으로 설정되었다.
7. 허생원은 성 서방네 처녀를 찾아 다니기는 했으나 그것 때문에 장돌뱅이가 된 것은 아니다.
8. 허생원에게 ‘봉평’은 성 서방네 처녀와의 추억이 깃든 곳이다. 그 추억을 되새기며 고달픈 삶을 이겨 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9. 사투리의 사용으로 원미동 사람들의 소박한 삶을 생생하게 드러냈지만, 사투리 사용 자체가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지는 않는다.
10. 김 반장과 싱싱 청과물 사내의 싸움 장면에서 김 반장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김 반장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싱싱 청과물의 장사를 방해하고 싱싱 청과물 사내에게 폭력까지 행사한다. 이로 인해 김 반장은 인정이 없고 냉정하며, 생계를 유지하느라 지독한 성격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1. 협상은 양보와 배려를 통해 서로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12. 김 반장과 경호네가 나뻐다고 하면서 싱싱 청과물의 폐업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안타깝게 여긴다.
13. 이 소설은 도시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주제로 쓴 것으로, 갈등의 근본 원인은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이다.
14. 언어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것을 드러내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15. 언어에는 단어나 구절, 문장을 만들 때 적용되는 일정한 규칙(문법)이 있다.
16.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하는 것은 언어의 역사성이다.

③ 왜 달이 되지 않을까?

① 사회성, ② 기호성, ④ 규칙성, ⑤ 창의성에 대한 설명이다.

Plus a !

‘언어의 역사성’의 다른 예

- 새로운 대상이나 개념의 탄생으로 새로운 말이 더 필요해진 경우
예) 컴퓨터, 휴대 전화, 햄버거
- 단어 차원의 변화가 나타난 경우
예) 즈믄 → 천, 뵈 → 산, 가람 → 강

7회

15 ~ 16쪽

1. ④ 2. ③ 3. ① 4. ④ 5. ① 6. ③ 7. ③ 8. 감꽃만, 오늘도 9. ③ 10. ③ 11. ⑤ 12. ③ 13. 난생 처음 봄을 맞는 장끼처럼 14. ④ 15. ① 16. ③ 17. ④

1. 수필은 일상생활 속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쓴 글이다.
2.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이다.

Plus a !

- 문장 : 사상이나 느낌을 단어로 연결하여 의사를 전달하는 최소의 단위
- 단어 :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
- 어절 : 문장 구성의 한 단위. 대체로 띄어쓰기와 일치
- 음절 : 한자한자 글자를 발음하는 것



3. 울림소리는 발음할 때 목청이 울리면서 나는 소리로, 자음 중 울림소리는 ‘ㄴ, ㄹ, ㅁ, ㅇ’이다.
4. 운율은 시의 형식적 특성으로 작품의 사회, 문화적 상황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5. 의인화된 사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 Plus a !**
• 과거(1~4행), 미래(5~8행), 현재(9행)
6. ‘하늘’은 화자의 삶의 지향점을, ‘별’은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를 의미한다.
- Plus a !**
* 긍정적 의미의 시어
• 하늘 : 화자의 삶의 지향점, 삶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절대적 기준
• 별 : 소망과 이상의 상징,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순수하고 결백한 삶
• 길 :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 투철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암울한 현실에서 민족을 구출하기 위한 순교자적 삶
- * 부정적 의미의 시어
• 바람(3행) : 화자의 내면적 갈등
• 밤 : 일제 강점하의 암담한 현실
• 바람(9행) : 화자가 처한 현실적 시련
7. 배가 고픈 아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술을 열어 보았을 뿐, 계속 굶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밥이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고 볼 수는 없다.
8. 시조의 종장 첫구는 3음절로 형식적 제약을 받는다.
9. 농업용 큰 자전거를 잘 탈지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고, 하루 종일 탔지만 계속 실패하자 막막한 마음이 들었으며, 자전거와 한 몸이 되어 내려가 삼 시간에 어른이 된 쾌감을 느꼈다.
10. 글쓴이의 어린 시절 시골에서의 자전거 타기 체험을 고백적으로 회상하여 쓴 글이다.
11. 자전거 타기를 통해 시, 춤, 노래를 배울 때에도 노력하고 경험을 쌓은 후 본능에 맡겨라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12. 이 글의 주제는 처음 자전거를 탄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끝까지 노력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13. 글쓴이는 자전거 타기에 성공하고 너무도 큰 성취감에 소리를 내질렀다. 그러한 기분을 난생 처음 봄을 맞는 장끼에 비유하였다.
14.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로, 자음 19개와 모음 21개로 이루어진다. 자음 중 ‘ㄴ, ㄹ, ㅁ, ㅇ’은 울림소리이다.
②는 형태소에 대한 설명이고, ⑤는 단모음에 대한 설명이다.
15. 이중모음은 소리를 낼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움직이며 변하는 것으로, ‘ㅑ, ㅕ, ㅗ, ㅛ, ㅜ, ㅠ, ㅡ, ㅣ’가 있다.
- Plus a !**
‘ㅑ, ㅕ, ㅗ, ㅛ, ㅜ, ㅠ, ㅡ, ㅣ’는 단모음이다.
16. 주어진 설명은 이중 모음에 대한 설명이고, ①, ②, ④, ⑤는 발음할 때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단모음이다.
17. ‘ㅁ, ㅂ, ㅃ, ㅍ’은 두 입술 사이에서 소리 나는 입술소리이다.

8회

17 ~ 18쪽

1. ⑤ 2. ⑤ 3. ㄱ, ㄴ, ㄷ, ㄹ, ㅁ, ㅂ, ㅇ 4. ② 5. ① 6. 자신의 공을 내세우려고 하고 잘못된 일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려고 하는 사람 등 7. ② 8. ③ 9. ③ 10. ③ 11. ② 12. ③ 13. 단지 음식을 주문하는 데 바닥에 다른 사람을 무릎까지 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14. ② 15. ⑤ 16. ④ 17. 음절의 끝소리 규칙, 자음 동화

1. 고전 수필은 조선 후기에 와서 작가층이 확대되며 크게 발전하였다.
2. 논평은 어떤 글이나 사건 따위에 자신의 견해를 담아 논리적으로 비평하는 글이다.
- ③ 왜 답이 되지 않을까?**
①~④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 어울리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3. 우리말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이 음절의 끝소리로 발음된다.
4. 사물을 의인화하여 우회적으로 인간의 모습과 잘못된 세태에 대해 풍자하고 있다.
5. 교두 각시는 가위, 척 부인은 바느질 자, 세요 각시는 바늘, 울 낭자는 다 리미, 청홍흑백 각시는 실, 인화 부인은 인두, 감투 할미는 골무이다.
6.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태도가 변하거나 자신의 처지에서 성실하게 살아 가지 못하고 남을 비하하며 자신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잘 보이고자 비위를 맞추는 인간의 모습 등을 비판하고자 한다.
7. 규중 칠우의 공치사 과정에서 규중 부인이 개입하여 모든 것은 인간이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자 규중 칠우는 공치사를 그치고 함께 동료 관계가 되어 인간에 대한 불평을 하게 된다.
8. 자신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잘해 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규중 부인이다.
9. 논평을 읽을 때는 논리적인 전개 방식과 효과적인 표현을 주의 깊게 살피고 이를 통해 글쓴이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읽어야 한다.
- ③ 왜 답이 되지 않을까?**
③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읽을 때의 방법이다.
10. 글쓴이는 지나치게 친절을 강요하는 사회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11. 글쓴이는 지나친 친절을 강요하는 사회 현상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12. 서비스가 더 강요되는 상황은 과열 경쟁 때문이다.
13. 글쓴이는 지나친 친절을 강요하는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4. [조아]는 음운(자음) 탈락이다.
[구과], [노타], [추카], [마치다]는 자음 축약이다.
15. ⑤는 [홀련소]로 역행 동화이다.
나머지는 [동내], [종노], [담넵], [동닙]으로 발음된다.
- Plus a !**
• 자음 동화 : 자음과 자음이 만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한쪽 또는 양쪽 모두 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
예 합리[합니], 종로[종노]
• 구개음화 : 자음 ‘ㄷ, ㅌ’이 ‘ㅣ’ 모음 앞에서 구개음인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예 굳이[구지], 같이[가치]
16. ④는 음운 축약이고, 나머지는 음운 탈락이다.
17. ‘ㅌ’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ㄷ’으로 발음된 뒤, 뒤의 자음 ‘ㄹ’을 만나 같은 울림소리로 변하는 자음 동화 현상이 일어났다.

9회

19 ~ 20쪽

1. ② 2. ② 3. ③ 4. ⑤ 5. ① 6. ④ 7. ①, ⑤ 8. 용왕의 병을 고치려고 토끼의 간을 구하러 왔기 때문이다. 9. ③ 10. ④ 11. ② 12. 일제의 압박(구속) 13.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14. ③ 15. ⑤ 16. ② 17. ⑤



1. 풍자와 해학은 지배층을 조롱하면서 웃음을 통해 현실적 문제를 풀어 보려는 서민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2. ‘아니리’는 상황을 설명하고 사건의 경과를 요약하는 데 주로 사용한다. ‘창’은 장면을 묘사하거나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Plus α!
‘창’은 판소리 등에서 가락에 맞춰 높은 소리로 부르는 부분으로 진양조장단, 중모리장단, 자진모리장단 등에 맞춰 부른다.
‘아니리’는 창을 하는 중간중간에 가락을 붙이지 않고 이야기하듯 엮어 나가는 사설이다.
3. 선언문은 당대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담아 주장하는 글로써 독자들의 변화를 의도한다.
4. 우리 고전을 읽으면서 선조들의 삶과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좋은 점은 계승해 나가는 적극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5. 판소리 사설은 훗날 한글로 기록되어 창작되었다.
6. 자라가 유식한 척 문자를 쓰려다 보니 앞뒤가 안 맞아 오히려 무식이 드러남으로써 웃음을 유발한다.
7. 우화는 동물을 통해 인간 세계를 우의적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낸다. 동시에 도덕성과 교훈성을 드러내기에도 효과적이다.
9. 오래 전부터의 억울함을 떨쳐 버리는 것은 독립의 필요성이다.
10. 이 글은 독립 선언서로 조선의 독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1. 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하며 읽는 글은 설명문이다.
이 글은 선언문이므로 주장을 제시하는 글이다.
12. 이 글이 쓰인 시대는 일제 강점기로 ‘다른 민족’은 ‘일제’를, ‘압제’는 강제로 점령하여 압박과 구속하던 것을 의미한다.
14.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와 문화의 특징을 반영한다.
15. 한국어는 공동체와 관련된 어휘가 많다.
16. ②는 ‘꺾+어 → 그어’로 ‘스’ 탈락이다.
③ 왜 답이 되지 않을까?
① 딸+님 → ‘따님’
③ 알+는 → ‘아는’
④ 바늘+질 → ‘바느질’
⑤ 울+짓다 → ‘우짓다’로 모두 ‘르’ 탈락이다.
17. [보기는 [동넙], [뽕노], [금뉴]로 상호 동화 현상을 보인다.
⑤는 [험넉]으로 상호 동화이다.
③ 왜 답이 되지 않을까?
① [강능], ③ [왕능]은 순행 동화
② [날로], ④ [압니]는 역행 동화이다.

10회

21 ~ 22쪽

1. ① 2. ③ 3. ③ 4. ① 5. ③ 6. 불친절하고 무뚝뚝한 노인이다.
7. ② 8. ③ 9. ① 10. ① 11. 전쟁 직후 12. ② 13. 혈령이
14. ③ 15. ⑤ 16. ③ 17. ③

1. 수필은 글쓴이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글로, 삶의 감동과 교훈을 준다.
2. 수필을 읽을 때에는 작품 속에 드러난 작가의 가치관 및 인생관을 파악하며 읽는 것이 좋다.
3. 언어가 나타내려는 의미와 그것을 표현하는 말소리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이지 아니라 임의적인 것이므로 언어는 필연성이 아니라 자의성을 지닌다.

4. ‘나’는 자신이 보기에 다 된 방망이를 완성이 안 되었다며 차 시간이 지나도록 주지 않는 노인에게 화가 나 있다.
5. 이 글에서 아쉬움은 드러나지 않는다. ‘갑갑하고 지루하고, 인제는 초조할 지경이다.’, ‘...될 대로 되라고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차를 놓치고 다음 차로 가야 하는 나는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등에서 ‘나’의 ①, ②, ④, ⑤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6. [다]에서 ‘나’는 노인의 행동에 대해 불친절하고 무뚝뚝하다며 화를 내고 있다.
7. 잘못된 사람이 도리어 성을 낼 때 쓰는 말이 ‘적반하장’이다.
③ 왜 답이 되지 않을까?
① 금상첨화 :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결초보은 :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뜻으로,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말
④ 어부지리 :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서로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가로챈 이익을 이르는 말
⑤ 설상가상 :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
8. 예술가가 심혈을 기울여 창작 활동을 하는 정신을 장인 정신이라 한다.
9. 이 글은 글쓴이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수필이므로 허구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10. [가]를 통해 어린 시절 ‘나’가 장난이 심한 개구쟁이였음을 알 수 있다.
11. [가]의 ‘그 당시가 전쟁 직후라서 그랬던가’에서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시기가 ‘전쟁 직후’임을 알 수 있다.
12. 어린이들의 놀이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당시 전쟁은 사회의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13. [가]에서 어린 시절의 글쓴이는 저녁에 집에 돌아올 무렵에는 혈령이 같은 모습이 되어 돌아오곤 했다고 하였다.
14. 문화를 형성하는 요인에는 언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모두 같은 문화를 갖는 것은 아니다.
15. ‘나’가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공동체 중심의 사고를 반영한 것이다. ② 혈연관계의 중시는 큰어머니, 작은어머니, 고모, 이모와 같은 다양한 친족어의 발달을 통해 알 수 있다.
16. 벼농사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벼’, ‘쌀’과 관련된 어휘가 발달했다. 이를 통해 문화와 언어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17. 국어 모음의 성질은 문화적 차이와는 관련이 없다.

11회

23 ~ 24쪽

1. ④ 2.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3. ① 4. ④ 5. ④ 6. ⑤
7. ① 8. 미움의 쇠붙이들 9. ⑤ 10. ④ 11. ① 12. 익명으로 작성될 경우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등 13. 지혜 14. ①, ⑤ 15. ⑤ 16. ⑤

1. 시인과 시적 화자가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2. 이별의 상황임을 짐작할 때 실제로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겠다는 반어적 표현이다.



Plus α !

‘진달래꽃’에 나타난 주요 표현 방법

- ① 역설 :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 자신의 희생을 통해 이별의 정한을 승고한 사랑으로 승화하고 있다.
- ② 반어 :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임이 떠날 때 자신은 매우 슬퍼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3. 촌평은 사회 문제에 대한 글쓴이의 주관적인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다.

4. [가] 시의 화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며 그리워하고 있다.

④에도 누님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다.

③ 왜 답이 되지 않을까?

- ① 한용운, ‘나룻배와 행인’ - 임을 향한 기다림
- ② 신동엽, ‘새해 새 아침은’ - 통일에 대한 염원
- ③ 신경림, ‘가난한 사랑 노래’ - 가난한 젊은이들의 아픈 사랑과 외로운 삶
- ⑤ 김남조, ‘너를 위하여’ - 임을 향한 사랑

5. ③ 왜 답이 되지 않을까?

①, ②, ③은 시각적 심상의 대비, ⑤는 촉각적 심상의 대비이다.

6. 이 시는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기를 바라는 시인의 창작 의도가 드러난 작품이다.

7. 분단 현실에 대해 인식하고 자주적인 통일이 올 것이라는 염원을 담은 시이다.

8. ‘미움의 쇠붙이들’은 동족간에 증오와 불신으로 가득 찬 군사적 대립과 긴장을 뜻하는 말이다.

9. ‘이웃 삼 척’은 자기 집 앞을 모두 쓸고, 이웃집 앞은 석 자 남짓씩만 쓰는 관행이다.

10. 글쓴이는 이웃에 대한 배려가 담긴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지 정당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은 아니다.

11. 촌평은 과거에는 지식인, 전문가가 대부분 실명으로 작성했지만, 현재는 인터넷 사용자 모두가 작성할 수 있고 익명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12. 촌평은 대상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목적으로 쓴 글이다. 특히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익명으로 작성하여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표현의 윤리성을 고려해야 한다.

13. [가]에서 글쓴이는 이웃 삼 척이란 말을 두고 ‘오늘날 되살리고 싶은 생활의 지혜다.’라고 하였다.

14. 문화재 반출을 막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팔았는 것으로 보아 애국심이 강하고 또 자신의 신념을 지켜 나가는 열정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15. 일화를 통해서 독자는 인물이 가진 가치관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더욱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다.

16. 역설법을 사용하여 전형필의 업적과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2. 설은 자신의 견해를 비유적, 우의적으로 표현하여 교훈을 주는 글이다.

Plus α !

설은 이치에 따라 사건과 사물을 해석하고 이에 대한 옳고 그름을 밝히면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는 한문 수필의 한 양식이다. 주로 ‘사실+의견’의 2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3. 연설은 일 대 다수 형식의 말하기 방식이다.

Plus α !

- 연설의 뜻 :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준비한 내용을 말하는 공격적인 형식의 말하기
- 연설의 특성 : 특정한 상황에서 청중의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설의 구성 요소 : 주장, 근거, 내용 전개 방식

4. 설은 한문 문학 양식이며 고려 양반층이 주로 썼다.

5. 행랑채를 수리하면서 느낀 깨달음을 인간사에 적용하므로 ‘유추’를 사용한 것이다.

③ 왜 답이 되지 않을까?

①은 대조법과 대구법, ②는 반어법, ④는 직유법, ⑤는 열거법이다.

6. ‘마지못하여’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은 ‘어쩔 수 없이’ 뿐이다.

7. 한 칸의 재목들은 완전해서 수리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비에 더 맞기 전에 일찍 수리를 했기 때문이다.

8. 행랑채의 수리에 대한 일화를 통해 삶의 이치를 깨닫고 나라의 정치까지 생각을 확대해 갔다.

Plus α !

(다) : 행랑채의 퇴락과 수리(예시) → (나) : 시기가 적절한 개혁 정치의 필요성(주지) → (개) : 삶의 이치를 깨달음.

9. ‘개와 이’에 얽힌 이야기를 예로 들고, 이들이 모두 죽는 것을 싫어한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비교하고 있다.

10. ‘개와 이’의 이야기는 하나의 예시일 뿐, 우화는 아니다. 이 글은 ‘개’와 ‘이’의 죽음을 보는 손님과 나의 대화를 통해 선입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삶의 태도를 깨우치고 있는 한문 수필이다.

11. 표면적인 사실(개와 이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면적인 진실(선입견에 빠지지 말라)을 밝히는 풍자적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12. 이 글의 주제는 사물에 대한 편견의 배제, 생명의 소중함 등으로,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견은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고 사물의 본질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13.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가는 중요하지만 근거가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다.

Plus α !

- 주장 : 연설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 핵심 주장과 하위 주장이 있음.
- 근거 : 연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

14. 제주도 올레길은 지킴이 활동이 낳은 긍정적인 결과로 일종의 예시이다.

15. 이 글은 연설문으로, 남북 전쟁에서 전사한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미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남게 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설득하고 있다.

16. 자유의 새 삶을 갖는 것은 하느님의 뜻에 준하는 당연한 일이며,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2회

25 ~ 26쪽

1. 설 2. ① 3. ③ 4. ② 5. ③ 6. ⑤ 7. ② 8. [다] - [나] - [가] 9. ② 10. ② 11. ⑤ 12. 생물의 본질은 모두 소중한 것이므로 편견 없이 사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13. ② 14. ② 15. ① 16. ①

1. 설은 한문으로 기록되고 글쓴이를 알 수 있으며, ‘사실(예화)+의견(주제)’으로 구성된다.

13회

27 ~ 28쪽

1. ⑤ 2. ③ 3. ③ 4. ③ 5. ④ 6. 용석 아범 7. ③ 8. ② 9. ③ 10. ① 11. ① 12. ⑤ 13. ④ 14. ㉠, ㉡, ㉢, ㉣ 15. ② 16. ⑤



1. 희곡은 연극의 대본으로, 인물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③ 왜 답이 되지 않을까?

①과 ③은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시나리오의 특징이다.

2. 희곡과 시나리오는 주로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묘사와 서술은 소설에서 쓰인다.

3. 협상을 할 때에는 자신의 요구를 무조건 관철시키는 것보다는 양보와 배려를 통하여 서로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항상 양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Plus α !

협상은 개인이나 집단 간의 의견 차이나 갈등을 당사자나 대표자가 협의하고 조정하는 일이다.

4. 희곡은 기본적으로 허구성을 바탕으로 쓴 글이다. 경우에 따라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이 녹아 있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실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올바른 감상 방법이 아니다.

5. ‘하식’은 긍정적이고 새로운 신세대를, ‘이중생’은 부정적인 구세대를 대변하는 인물이다.

6. 용석 아범은 구세대이면서 긍정적 인물이다. 하식과 송달지는 신세대이면서 긍정적 인물이고, 이중생은 구세대이면서 부정적 인물이다.

7. 독경 소리가 커짐에 따라 한층 분위기가 고조되고 긴장감이 커진다.

8. ②는 자신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 버림을 뜻한다.

③ 왜 답이 되지 않을까?

① 호가호위 :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③ 팔목상대 : 놀랄 만한 발전을 보임.

④ 우이독경 :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이 없음.

⑤ 금상첨화 : 좋은 일에 더 좋은 일이 생김.

9. 연설문은 주로 설득의 목적이 강하다.

10. 연설을 듣는 청중은 단순히 내용을 듣는 사람이 아닌, 연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주체이므로 비판적인 태도로 들어야 한다.

11. 정부는 조금 더 진전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최선의 조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연설자는 현재의 대통령 덕분에 문제의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12. ⑤는 문제 해결하기 절차에 해당한다.

13. 목표는 최대한 크게 잡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적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목표에서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과 순차적으로 양보할 것, 조건을 붙여 양보할 것들을 정한다.

14. ✳ Plus α !

협상은 이해관계가 달라서 생길 수 밖에 없는 의견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개인 및 집단 간의 충돌을 막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15. ②는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한 태도이다.

✳ Plus α !

협상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표현 방법의 예

- 상대의 의견을 요약한다.
- 상대의 의견이 가지는 의의를 언급한다.
- 상대의 처지에 대한 공감을 밝힌다.
- 얼굴 표정, 시선, 몸짓 등 비언어적인 표현을 활용한다.

16. 원탁 토의는 대화 형식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토의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어진 토의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이 쉽다.

14회

29 ~ 30쪽

1. (1) × (2) ○ 2. ⑤ 3. ⑤ 4. ⑤ 5. ③ 6. ② 7. ⑤ 8. 오아시스 세탁소 9. 켑거루족 10. ④ 11. ③ 12. ③ 13. ② 14. ④ 15. 전통 문화 16. ④

1. 지역 방언과 표준어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

2. 방언은 지역적 차이에 의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각 지방의 언어이다.

3. 원활하고 표준화된 언어 생활의 정립은 표준어 제정의 목적이다.

4. 무대 장치나 장면의 변화가 자유롭지는 않으나,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Plus α !

희곡의 특성

①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 대본

② 막과 장을 기본 단위로 함.

③ 시간과 공간, 등장인물 수의 제약을 받음.

④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됨. (현재형)

⑤ 갈등과 대립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됨.

⑥ 인물, 사건, 배경으로 구성된 허구적인 글

5. 이 글에 독백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왜 답이 되지 않을까?

① 대화 - [나], [다] ② 해설 - [가] ④ 무대 지시문 - [나]

⑤ 동작 지시문 - [나]

✳ Plus α !

희곡의 구성 요소

(1) 대사

① 대화 : 등장인물끼리 주고받는 말

② 독백 : 상대방 없이 한 인물이 혼자 하는 말

③ 방백 : 관객에게 들리나 상대 배우에게는 들리지 않는다는 약속 아래 하는 말

(2) 해설 : 첫머리에서 등장인물, 배경, 무대 장치를 설명

(3) 지시문

① 무대 지시문 : 무대 장치, 분위기, 등장인물, 배경 등을 지시

② 동작 지시문 : 등장인물의 행동, 표정, 심리, 말투, 등장·퇴장 시기 등을 지시

6. 안유식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찾는 데 협조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한 것이다.

7. 할머니의 재산에 집착하는 인물들을 통해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8. 이 글은 오아시스 세탁소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9. ‘나이가 차도 부모한테 얹혀 사는 젊은이’를 가리켜 ‘켑거루족’이라고 한다고 나타나 있다.

10. 켑거루는 새끼를 품에 안고 키우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미가 새끼를 몰아내어 자립심과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다.

11. 어려서부터 혼자서 자신의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는 독립심과 자립심을 배우라고 글쓴이는 주장하고 있다.

12. ‘켑거루족’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13. ②는 풍자나 비관이 지나친 표현에 해당한다. 이러한 표현은 윤리성에 어긋난 표현이다.

14. 전라도 방언을 사용하여 토속적 정서를 유발하고, 단풍을 보고 놀란 누이의 정서와 모습을 생생하게 나타내며, 같은 구절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시의 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과는 관련 없다.

15. 이 글은 ‘당각’이라는 방언을 통해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를 복원할 수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방언이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16. 지역 방언은 각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보여 주고, 이를 발전시키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지역 방언이 각 지역의 문화를 하나로 합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15회

31 ~ 32쪽

1. ① 2. ⑤ 3. (1) ○ (2) × 4. ③ 5. ② 6. ④ 7. ③ 8. 설령탕 9. ⑤ 10. ② 11. ③ 12. 국기 훼손 13. ⑤ 14. ⑤ 15. ④ 16. ⑤ 17. 수집한 정보를 재구성

- ①은 어머니의 심리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 면담자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상 관측 기술의 현황’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면담할 때에 주제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김 침지가 설령탕을 사 온 것은 아내의 죽음을 예감해서가 아니라 취중에도 아내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을 사 온 것으로, 설령탕은 아내에 대한 김 침지의 애정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 김 침지는 아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쫓아버리기 위해 욕을 퍼붓고 고함을 지르고 있다.
② 허장성세 :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
③ 왜 달이 되지 않을까?
① 이심전심 :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③ 이울배반 : 서로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명제
④ 연목구어 :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⑤ 각골난망 :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함.
- 아내의 죽음에서 오는 슬픔, 허탈감, 절망감, 자책감, 안타까움 등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인물의 내면 심리나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이 글에서 설령탕은 김 침지의 아내에 대한 사랑과 설령탕을 먹지 못하고 죽은 아내의 비극성을 극대화한 소재이다.
- 논증하는 글은 독자가 속해 있는 문화적 관습을 고려하여 쓴다.
- 태극기로 만든 옷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태극기를 경건한 것으로 보느냐,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느냐의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③은 태극기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을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아 찬성해야 한다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더욱이 태극기로 만든 옷이 알려진다고 해서 우리 문화가 전파되는 것은 아니다.
- 태극기로 옷을 만드는 것을 ‘국기 훼손’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의견과 순수한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보는 사람들의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 면담 대상자와 면담자의 친밀도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 면담자와 면담 대상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적인 자세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과정에 해당하므로 면담자도 면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이나 의견 등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 많은 양의 질문보다는 면담의 목적 달성에 적절한 질문을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
- 기술에 대한 투자와 관심,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정확한 기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면담을 한 후에는 수집한 정보를 재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2년

1회

37 ~ 38쪽

1. ② 2. ③ 3. ③, ④ 4. ③ 5. ② 6. ① 7. ④ 8. 빛의 간섭 현상 9. 양반은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무능한 존재이다. 10. ① 11. ⑤ 12. ③ 13. 실학 사상 14. ② 15. 예시 16. ㉠-㉡-㉢ 17. ③ 18. ⑤ 19. 접사 20. ④

- 이 시조의 화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벽계수가 본인과 함께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것이다.
- 3연 3행을 보면 이 시의 화자는 떠난 임이 다시 돌아올 것을 굳게 믿으며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 시적 화자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사랑하는 임을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였다.
- ㉡에 사용된 수사법은 은유법이다.

③ 왜 답이 되지 않을까?

- ③에 사용된 수사법은 직유법이다.
- 색 변환 잉크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색 변환 잉크는 복사할 수 없다.
 - [가], [나]는 각각 지폐 위조 방지 기술과 웹 만화의 특징 여러 개를 대등하게 나열하는 병렬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 웹 만화는 인터넷상에서 두루마리처럼 아래로 길게 펼쳐 읽는 것이다. 즉 마우스를 이용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읽는 세로 읽기 형식이다.
 - [마]의 마지막 문장에서 공통적인 이유가 설명되어 있다.
 - 양반이 생활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가장으로서 빛을 해결할 능력조차 없음을 비꼬는 말이다.
 - 당시 양반은 가난하더라도 늘 존경을 받고, 평민들은 천대를 받아 왔다.

✨ Plus α !

- 작품에 나오는 부자의 특징
부자는 조선 후기 등장한 평민 부자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돈은 많지만 신분이 낮아 양반에게 수모를 당하고 이로 인해 양반이 되고자 하는 신분 상승 욕구가 있다.
- 부자는 평민에게 횡포를 부리는 부도덕한 양반의 행태가 담긴 증서 내용을 듣고 인간으로서 할 것이 못 된다고 깨닫고 있다.
 - 이 글의 양반은 어려운 형편 때문에 양반 신분을 판 것이지, 신분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박지원의 양반전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실학 정신을 바탕으로 쓰여졌다.
 - 수필과 소설은 모두 인생의 참된 가치를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봄에 피는 양중맞은 노란 꽃의 예를 들고 있다.

✨ Plus α !

- 설명문의 내용 전개 방법
- 정의: 대상 및 용어의 뜻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방법
 - 예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
 - 비교: 두 대상 간의 비슷한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
 - 대조: 두 대상 간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
 - 분류: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
 - 분석: 대상의 구조나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방법
- ㉠ 본론, ㉡ 서론, ㉢ 결론
 - 구성원 전체가 참여한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따르는 것이 좋다.
 -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청중 앞에서 강의하는 말하기를 강연이라고 한다.
- 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을 이용하여 질문한다.
-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은 '접사'이다.
 - ④ 맨(접사)+손(어근)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2회

39 ~ 40쪽

- ③ 2.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3. ② 4. ⑤ 5. ① 6. ③ 7. 한지는 모든 제조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생산량이 적고 값이 비싼 반면, 양지는 공장에서 기계로 만들어져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값이 싸며 재료로서의 질도 좋다. 8. ①, ② 9. ② 10. ⑤ 11. ④ 12. ② 13. ③ 14. ③ 15. ⑤ 16. 본문을 요약하고 당부의 말을 덧붙인다. 17. ③ 18. 글을 잘 쓰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하나요? 글을 잘 쓰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죠? 등 19. ② 20. 뜰에 있는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뜰에 있는 꽃

- 꽃과 담쟁이를 통해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삶의 고난을 이겨 내고 극복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③ 왜 답이 되지 않을까?
㉠, ㉡은 표현상 특징과 운율을 중심으로 감상하였으므로, 형태적 아름다움에 주목한 감상이다.
- 흔들리며 피는 꽃을 통해 우리의 삶과 사랑도 고난과 역경을 이겨 낸 후 완성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 ① 논설문은 독자의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
- 한지와 양지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왜 답이 되지 않을까?
① 비교, ② 분류, ④ 예시, ⑤ 정의이다.
- 글 [가]의 셋째 문장에 한지와 양지의 제조 방법의 차이점이 나타나 있다.
-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다.
- 중의적 표현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이 가능한 표현이다.
- 이 작품은 물질적 가치에 얽매이지 않은 순진한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른들의 물질적인 삶을 비판하는 효과가 크다.
- 소년이 판잣집에 들어갈 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몰래 들어간다고 한 표현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싫어함을 짐작할 수 있다.
- 할아버지는 자연을 즐기지 못한 아이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③ 소설은 작가가 있음직한 일을 상상력을 통해 쓴 작품으로 작가가 겪은 일은 아니다.
- [가]는 분석의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 ③ 왜 답이 되지 않을까?
③은 분류의 방식이 적합하다.
-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를 분석하는 설명문이다.
- [다]는 설명문의 맺음말 부분이다.

✨ Plus α !

설명문의 짜임

머리말(처음)	설명 대상 제시, 글 쓰는 이유를 밝혀 독자의 관심 유도
본문(중간)	다양한 내용 전개 방법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맺음말(끝)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을 요약, 정리

- 설명의 대상과 주제를 가장 먼저 정한다.
- 강연자는 어떻게 하면 글을 쓰는 능력이 향상 되는지를 알려 주고 있다.
- 충분히, 크게, 한참, 적당히 등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의미가 모호하다.
- 뜰이 아름다운 것인지 꽃이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 Plus α !

중의적 표현을 고치는 방법

- 의미가 분명해지는 부분에 반점(.)을 사용한다.
- 내용이 분명해지도록 다른 정보를 추가하거나 보충한다.
- 문장의 의미가 분명해지도록 어순을 바꾼다.
- 표현의 사용 범위를 한정시키거나 의미가 모호한 단어를 구체적인 의미가 드러나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한다.



3회

41 ~ 42쪽

1. ④ 2. ④ 3. ① 4. ④ 5. ①, ⑤ 6. (1) 재생 가능 에너지란 고갈되지 않고 기후 변화도 일으키지 않으며 안전한 에너지를 말한다. (2) 태양 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조력, 지열 등 7. 첫째, 화석 연료를 대신할 에너지를 찾는다. 둘째, 에너지의 효율을 높인다. 8. ② 9. ② 10. ① 11. ③ 12. ⑤ 13. ⑤ 14. ③ 15. ④ 16. 더벅머리 학생 17. 특별 구역 청소 당번에게 주변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 18. ④ 19. ⑤ 20. ②

1. 화자는 자연과 함께 하는 욕심 없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2. 화자는 스스로 산 너머로 넘어가거나 소식을 알아내려고 하지 않고 바늘 장수를 기다리고 있다.
3. [나]의 주된 심상은 청각적 심상이다.
②·④ 시각적 심상, ③ 촉각적 심상, ⑤ 후각적 심상

✧ Plus α !

심상의 종류

- 시각적 심상 : 눈으로 빚깁, 모양 등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심상
예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
- 청각적 심상 : 귀로 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심상
예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 후각적 심상 : 코로 냄새를 맡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심상
예 어마시 그러운 숨씨에 향그로운 꽃지집
- 미각적 심상 : 혀로 맛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심상
예 매마른 입술에 쓰디쓰다.
- 촉각적 심상 : 피부에 닿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심상
예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 공감각적 심상 :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 표현하여, 둘 이상의 감각이 어우러진 심상
예 푸른 휘파람 소리 - 시각적 심상+청각적 심상 = 청각의 시각화

4. ④ [나] 시에서는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5. [가], [나]는 서론에 해당한다.
6. [다] 문단을 참고한다.
7. 본문에서 첫째, 둘째로 나누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 정리한다.
8. ② 에어컨은 적정 온도를 설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어컨을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
9. 이 글은 시나리오로, 희곡보다 등장인물 수에 제약을 덜 받는다.
10. 7반 주장은 자기가 반칙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또한 욕이의 과거 행동을 비웃고 있다.
11. [가]는 7반 주장과 욕이가 대화하는 장면으로, 7반 주장은 욕이를 조롱하고 비웃 듯 말하나, 욕이는 태연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12. 양심 있는 행동의 결과로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양심을 지키는 행위를 한 사람이 진정한 챔피언임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13. 이 글은 노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삶의 교훈을 이끌어 내고 있다.
14. 글쓴이가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통해 삶의 깨달음을 주고 있는 글이다.
15. 노승의 따뜻한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16.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바탕으로 찾아보면 된다.
17. 영호는 특별 구역 청소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8. ‘-뱅이’는 그것을 특성으로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이다. 나머지는 모두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어근이다.
19. 기사문에 쓸 내용을 선정하는 과정이다.
20. 자전거 통학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보여 주기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4회

43 ~ 44쪽

1. ② 2. 무 한 쪽 3. ④ 4. ③ 5. ⑤ 6. ⑤ 7. ① 8. 이해관계 9. ② 10. ㉠ 11. ⑤ 12. ③, ④ 13. ④ 14. ② 15. ㉠-㉡-㉢-㉣ 16. ② 17. ① 18. ③ 19. ④ 20. ⑤

1.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와 부부 간에 서로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2. 힘들게 나무를 하고 돌아오신 아버지를 위해 어머니가 건네는 무 한 쪽은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한다.
3. 1연과 2연이 유사한 구조의 대칭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한다.
4. ①은 꽃, 바람, 비 등이 시어에 담긴 은유, ②는 1연과 2연의 대칭 구조, ④는 시어, 시구의 반복, ⑤는 ‘~랴’와 같은 의문문의 형식을 취한다.
5. 인생에서 겪는 시련과 고난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6. 글쓴이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담긴 글로 ⑤와 같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7. 두 글 모두 독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인 내용을 담은 글이다.
8. [가]에서 다툼의 원인이 되는 밥은 당쟁 사이의 다툼의 원인이 되는 이해 관계를 의미한다.
9. 다툼의 근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시된 일상의 예로, 이를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뒷받침하고 있다.
10. |보기|는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종고 즐겁게 살도록 하자는 글쓴이의 주장에 예상되는 반론(일찍이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으니 그것은 공상이다.)를 재반박하는 문장이다.
11. 남의 의견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바람직한 회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12. 회의의 목적은 문제를 공유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⑤는 설득하는 것이 목적인 토론이다.
13. 연설문의 해결 방안은 공정성, 공익성, 합리성,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14. 청중의 반대 의견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15. 기사를 쓰는 목적에 맞게 자료나 정보를 수집한 후 정보를 재구성한다.
16. 몸치는 파생어이고, 나머지는 합성어이다.

✧ Plus α !

낱말의 형성

구분	형성 방법
단일어	하나의 어근만으로 이루어진 낱말 ㉠ 밤, 물, 하늘, 집, 나무 등
복합어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낱말 • 합성어 : 둘 이상의 어근(실질 형태소)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낱말 ㉡ 떡국, 돌다리, 오가다, 검불다 등 • 파생어 : 어근(실질 형태소)과 접사(형식 형태소)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낱말 ㉢ 덧저고리, 햇밤, 새파랑다 등

17. 사귄길은 교차로를 뜻하며 한자어를 고유어로 교체한 것이다.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말의 특성은 있지만 이 문장에서는 찾을 수 없다.
18. ③ 남북한의 언어에서 문장의 어순은 차이가 없다.
19. ① 껍밥 - 도시락
② 원주필 - 볼펜
③ 조선옷 - 한복
⑤ 사람그림 - 인물화
20. ㉠ 왜 답이 되지 않을까?
① 전문어는 은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다.
② 은어가 널리 알려지면 은어의 성격을 상실한다.
③ 유행어와 전문어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둘 언어는 은어의 역할을 하며, 듣는이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다.
④ 인터넷 매체는 은어를 널리 알리는 데 주된 역할을 했다.



5회

45 ~ 46쪽

1. ② 2. 반어법 사용 3.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4. ⑤ 5. ④
6. ① 7. ① 8. ② 9. ⑤ 10. ② 11. ⑤ 12. ①, ③ 13. ⑤
14. ⑤ 15. ⑤ 16. ① 17. ④ 18. ③ 19. ④ 20. 우리는 우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이 시는 형식상 자유시이다.
- ‘잇었노라’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입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화자가 줄곧 당신을 잊지 않고 그리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⑤ 내용과 형식 모두가 중요하므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 ④ **왜 답이 되지 않을까?**
 - 비유법을 사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시어, 시구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드러낸다.
 - ‘나무’, ‘쇠’는 아버지, 어머니의 손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비교한 사물이다.
- 모방시를 쓸 때에는 원래 시의 운율, 구조, 표현 방법 등을 살려 원래 시와는 다른 자신만의 생각을 쓴다.
- 신분 질서가 동요되고 있지만 양반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평민 부자가 돈으로 양반의 신분을 사려는 모습에서 신분 질서의 동요로 매관매직이 성행하던 조선 후기의 모습을 알 수 있다.
- ⑤ 현실적인 능력은 없으면서도 예의 범절만을 중시하여 형식적인 겉치레에 얽매인 양반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 군수는 겉으로 평민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나,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들을 날날이 열거하여 평민이 양반되는 것을 은근히 방해하고 있다.
- ⑤ 라디오는 소리, 음악, 음향 등의 음성적 요소를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대중 매체이므로 표정, 동작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할 수 없다.
- ④ **왜 답이 되지 않을까?**
 - 목소리의 크기와 속도는 적당한가?
 - 라디오 프로그램은 청각에 의존하는 매체이므로 표정과 몸짓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프로그램의 성격에 알맞은 어조로 말하고 있는가?
- 지은이는 할머니께 신세대의 문화를 가르쳐 드리기보다는 할머니 말씀에 수긍하며 존중하는 태도로 맞장구를 치고 있다.
- ④ **왜 답이 되지 않을까?**
 - 관습적인 말하기는 주로 어른 세대의 말하기 방식이다.
 - 젊은 세대의 말하기 방식이다.
 - 회고적 말하기는 주로 어른 세대의 말하기 방식이다.
 - 어른 세대의 말하기 방식이다.
- 예술가는 원영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싶지 않아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
- 라임이와 주원이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인지,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 ④ 글의 짜임을 파악하면 글쓴이의 의도와 주제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글의 세부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블랙홀의 생성 원인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 주장을 요약, 강조하는 마무리 부분이다.
- [나]는 주장을 강조, 당부하며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이다.

6회

47 ~ 48쪽

1. ⑤ 2. ④ 3. ⑤ 4. 조국 광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암울한 현실에 저항하고 있다. 5. ④ 6. ③ 7. ③, ⑤ 8. ⑤ 9. ④ 10. ①
11. ② 12. ② 13. ⑤ 14. ② 15. ③ 16. ⑤ 17. ④ 18. ④
19. ① 20. ④

- ⑤ 화자는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밝은 미래를 준비하며 확신하고 있다.

Plus α !

시에서 말하는이(화자)의 유형

시에 직접 나서서 말하는 경우 (화자가 드러나는 경우)	시인의 내면을 고백적으로 드러내기에 알맞다.
허구적 인물이 화자로서 말하는 경우 (화자가 드러나는 경우)	시인이 의도하는 효과를 나타내기에 알맞다.
시 밖에서 상황만을 제시, 관찰하는 경우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	대상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기에 알맞다.

- ④ **왜 답이 되지 않을까?**
 - 소망하는 세상이 아직 아득함
 - 하늘이 풍성하게 돌아올 것임
 - 우리 민족이 탈 수 있는 배
 - 광복을 가져올 수 있다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의미

- ⑤는 흰색 이미지이고 나머지는 모두 푸른색 이미지이다.

- 말하는 이는 조국 광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확신하고 있다.

- ①은 소설 또는 극, ②·③은 시, ⑤는 소설에 대한 설명이다.

- 만화 풍자물은 비교적 간단한 이미지와 글을 결합하여 표현한다.

- ④ **왜 답이 되지 않을까?**
 -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 인터넷 풍자물은 표현의 자유가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제약이 없다.
 - 신속히 퍼져 나가므로 파급력이 크다.

- ⑤ 학생들의 개인적 의견이라 해도 수업 과제와 관련되고 수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수업 대화의 예라 할 수 있다.

- ④ 신속히 퍼져 나가므로 파급력이 크다.

- ⑤ 학생들의 개인적 의견이라 해도 수업 과제와 관련되고 수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수업 대화의 예라 할 수 있다.

- ④ **Plus α !**

수업 단계

수업 대화는 주 기능 단계와 보조 기능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주기능 단계는 ‘안내 단계-복습 단계-주제 전개 단계-예고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주제 전개 단계에서 상호 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 ① 매체 자료는 많이 준비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만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이 작품에는 조선 후기 혼인 제도의 문제점이 잘 나타나 있다.

- 김명정은 사윗감이 절름발이라는 소문을 퍼뜨려서 새로운 사건을 일으킨다.

- ‘아주 막역한 사이’라고 했으므로 ⑤가 적절하다.

- 이 글은 글쓴이의 경험을 솔직하고 고백적으로 진술한 경수필이다.

- 용기, 격려의 의미를 지닌 말이다.

-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 ⑤가 적합하다.

- 대화나 글에서 말과 관련을 맺어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상황 맥락이라고 한다.

- 치과에서 진료를 받는 상황이므로 ④가 적절하다. 나머지는 식당에서 어울리는 말이다.

- 메모는 간략하게 하는 것이므로 완전한 문장보다는 짧은 구절로 하는 것이 좋다.

- ④ 자료 첨부가 가능한 것은 전자 우편에 해당한다.



1년

1회

53 ~ 54쪽

1. ⑤ 2. ③ 3. ① 4. ④ 5. ② 6. ㉠ 앞에서 박이 먹고 살기 힘들어 김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는 내용이나, ㉠ 뒤에 이어지는 “재물을 거저 얻으면 쉽게 없애고, 또 게을러지는 까닭에 마음에 없는 고생을 시켰네.”로 보아 김이 박을 냉정하게 대하였을 것이다. 7. ③ 8. ④ 9. ③ 10. ④ 11. ⑤ 12. ⑤ 13. ④ 14. ④ 15. ①, ⑤ 16. ③ 17. ② 18. ⑤ 19. 면담 20. ①

1. [가]는 연극의 대본인 희곡이다. ⑤는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이다.

✿ Plus α !

희곡과 시나리오의 공통점

- 현재형의 문학
 -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산문 문학
 - 작가의 상상력으로 꾸며낸 허구의 문학
 - 주로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 사건이 전개됨
2. 원술은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을 분수에 넘치는 것(과람)이라 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살아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
3. ① 근심스러운 상황에 적합, ② 못마땅한 표정을 지을 때, ③ 부끄럽거나 화가 났을 때, ④·⑤ 몹시 화가 났을 때
4. ④는 [나]만의 특징이다. 희곡인 [가]의 경우는 등장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가 드러난다.
5. 김은 박과의 약속을 깨뜨리지 않았다. 도리어 친구의 잘못을 깨우치게 하여 발전하도록 유도하고, 그의 가족들을 도왔다.
7. 운문과 산문을 구별하는 핵심 요소는 운율이 있는가 없는가이다.
8. [가] 자유시, 서정시, [나] 정형시, 서정시

✿ Plus α !

시의 종류

형식상	자유시	일정한 규칙 없이 자유롭게 쓴 시
	정형시	정해진 형식에 맞게 쓴 시
	산문시	행의 구분 없이 줄글(산문)처럼 쓴 시
내용상	서정시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한 시
	서사시	역사적 사건이나 영웅의 이야기를 쓴 시
	극시	희곡의 형식으로 쓴 시

9. [가]는 고백적이고 독백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10. [나]는 4음보의 규칙적인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11. ‘a-a-b-a’의 반복 구조를 지니지 않은 것을 찾는다.
13. ④는 아까시나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14. ④는 스스로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요소로 아까시나무의 좋은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16. [가]에서 잘못된 인식을 소개하고, [나]에서 그에 대한 반증을 제시한다.
17. 수업을 들으면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메모한다.

✿ Plus α !

메모하며 듣기의 효과

- 듣는 동안 내용에 집중하게 됨
 - 듣는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게 됨
 - 듣는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음
 - 듣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듣는 내용을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음
 - 나에게 더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음
18. ① 예시, ② 요약, ③ 강조, ④ 요약, ⑤ 예고
19.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서로 만나 의견을 나누거나 묻고 대답하는 일을 면담이라고 한다. 면담의 주된 목적은 정보 수집, 상담, 설득, 평가이다.
20. 듣는이가 지루하거나 딱딱해하지 않게 개성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2회

55 ~ 56쪽

1. ① 2. ② 3. ⑤ 4. ⑤ 5. ① 6. ⑤ 7. ③ 8. ⑤ 9. 호출장
10. 나치에 호출되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는 일 11. ② 12. ②
13. ④ 14. ③ 15. ⑤ 16. 라디오 광고 17. ⑤ 18. ③ 19. ③
20. 대조, 예시

1. 상우와 철이의 갈등을 통해 해연을 좋아하는 상우의 심리를 중점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2. 상우는 해연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철이가 방해하는 것 같아, 철이를 미워한다.
3. 소에게 쫓기는 모습을 보고 소가 온다고 외친 것이 아니라, 철이를 골탕먹이기 위해 속인 말이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우연의 일치로 소가 돌진해 온 것이다.
4. 상우는 철이 때문에 해연이를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철이를 미워하고 놀리게 된다.
5. 위험한 상황에 있던 자신을 구해 준 것으로 생각한 감사의 표시이다.
6. 가족 중의 한 사람이 강제 수용소나 감방으로 끌려가게 될 상황임을 생각한다. ⑤는 쓸쓸하고 막막하다는 뜻으로 이런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7. 이 글에는 독일의 박해로 유대 인들이 받는 고통이 잘 드러난다. 유대 인 소녀의 일기이므로 전쟁 중의 불안함과 가족 간의 사랑이 나타난다.
8. ㉠, ㉡, ㉢, ㉣-안네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다. ㉤은 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11. [가]는 ‘별’, [나]는 ‘수석송죽월’, [다]는 ‘달’이라는 자연적 소재를 통하여 자연과의 친화감을 드러낸다.
12. 별이 밝게 비치다가(1연), 서서히 새벽이 가까워지면서 사라지고 있다(2연).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상 전개로 봄이 옳다.
13. ① 은유법, ② 의인법, 반복법, ③ 역설법, ④ 대구법, 의인법, 직유법, ⑤ 반어법

✿ Plus α !

시의 표현 방법

- 직유법 : ‘처럼’, ‘같이’, ‘-듯이’ 등의 연결어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 은유법 :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A=B’의 방식으로 은근히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
 - 의인법 :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사람처럼 표현하는 방법
 - 영탄법 : 감탄하는 말로써 놀람, 슬픔, 기쁨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 반복법 : 같거나 비슷한 말, 어구, 문장 등을 되풀이하여 표현하는 방법
 - 도치법 : 정상적인 문장 배열 순서를 바꾸어 표현하는 방법
14. 이 다섯이면 충분하다는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난 것이다.
15. [다]의 분위기는 향토적, 낭만적, 서정적, 시적이다. 이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는 달빛이다.
17. ① 능동, ② 피동, ③ 능동, ④ 피동, ⑤ 사동

✿ Plus α !

사동·피동 표현

- 사동(使動) 표현 :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것
 - 피동(被動) 표현 : 어떤 행위나 동작이 남의 행동에 의해서 되는 행위
 - 주동(主動) 표현 :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는 것
 - 능동(能動) 표현 :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 힘으로 하는 것
18. ㉠ 왜 답이 되지 않을까?
- ① 명사 : 길
② 대명사 : 그
④ 동사 : 넘어졌다, 일어나는, 도와주었다
⑤ 부사 : 어제, 그러나
19. ① 정의, ② 분석, ④ 과정, ⑤ 비교 또는 대조
20. 제시된 글은 인간과 동물의 의사소통 수단의 차이점을 말하고, 후각을 이용한 동물의 의사소통의 예를 들고 있다.



3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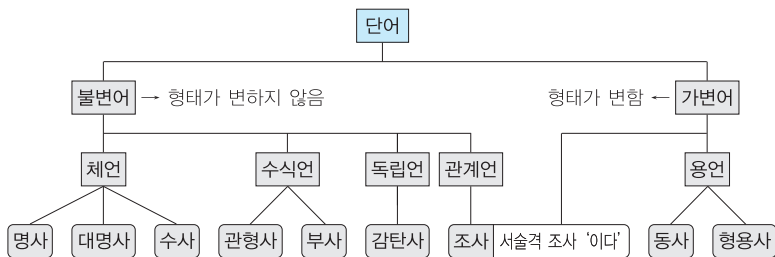
57 ~ 58쪽

1. ③ 2. ② 3. ③ 4. ① 5. ③ 6. ④ 7. ⑤ 8. ① 9. ①
10. ⑤ 11. 글 읽기의 의의를 설명하고 본문의 내용을 요약·정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12. ④
13. ⑤ 14. ⑤ 15. ② 16. 길동의 꿈은 호부호형하고, 출세하여 이
름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서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호부호형
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는 출셋길이 막혀 자신의 뜻을 펴 볼 기회를
아예 얻지 못하여 탄식하고 있다. 17. ① 18. ③ 19. ④ 20. (예
시 답)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여 환경을 보호하자.

1. 시어는 사전에 풀이된 뜻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2. ㉠은 동경의 세계, 소망의 세계를 의미한다.
3. ① 은유법, ② 과장법, ③ 의인법, ④ 직유법, ⑤ 역설법, 도치법
4. 제시된 시와 [가], [나]는 모두 3음보의 내재율을 지닌다.
5. [다]는 '얼굴'과 '호수'의 대조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라]는 '찌꼬리'
와 '화자'의 대조를 통해 이별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 ㉡ 왜 답이 되지 않을까?**
- ① 어느 것과도 관련이 없다.
② [라]는 고전시이다.
④ [라]에만 나타난다.
⑤ 두 작품 모두 시각적 이미지가 중심이다.
6. 글자를 읽을 수 있더라도 문장을 이해 못 할 수도 있고, 문장을 이해하더
라도 글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 못 할 수도 있다.
7. [마]의 첫 문단에서 글 읽기의 의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8. 글 읽기를 관현악단의 연주 감상에 빗대어(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9. '처음- [가], 중간- [나], (다), [라], 끝- [마]'로 나눌 수 있다.
10. ⑤는 시를 읽을 때의 바른 태도이다. 소설을 읽을 때는 인물 간의 갈등과
배경을 파악하고, 대화와 행동에 담긴 인물의 심리 등을 고려하며 읽어야
한다.
12. ① 설명문, ② 수필, ③ 광고문, ④ 소설, ⑤ 논설문
13. ①, ②, ③, ④- 고전 소설의 일반적 특징
⑤- 현대 소설의 일반적 특징
고전 소설은 보편적으로 배경의 설정이 비현실적이다.
14. '공맹'으로 출세하지 못하면 '병법'을 익힌다는 것으로 보아 문관으로의
출세를 가장 선호했다.
17. ㉠의 허전함은 소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감정이고, ㉡는 소녀가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부끄럽고 당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다.
18. ① 대명사, ② 명사, ③ 동사-형용사, ④ 부사, ⑤ 수사

Plus a !

품사 한눈에 보기



19.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설득하는 광고는 공익 광고이다.

Plus a !

광고의 종류

- 상품 광고 :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하여 그
상품을 사도록 소비자를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 기업 광고 : 기업에 대해 소개하거나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 공익 광고 :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사
람들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4회

59 ~ 60쪽

1. ② 2. ④ 3. ① 4. 까마귀, 강물 5. ① 6. ④, ⑤ 7. ⑤ 8.
② 9. ① 10. ② 11. ④ 12. ③ 13. ④ 14. ⑤ 15. ⑤ 16. 말
이 없는 17. ② 18. ③ 19. ㉠-㉡-㉢-㉣ 20. ③

1. 정서 및 분위기 면에서 작품들 간에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나, 전체적으로
동요적이거나 밝은 느낌의 평화로운 분위기이다. 그러나 ②의 경우는 이별
의 아쉬움과 외로움이 짙게 느껴지는 작품으로 가장 이질적인 분위기이다.
2. 김영랑은 시문학과 시인으로 언어의 음악성, 섬세하고 세련된 언어의 조
탁에 특히 관심을 가진 작가로서, 이 작품에서도 그의 일반적인 작품 경향
이 잘 반영되어 있다.
3. 상징적인 표현은 드러나지 않는다.
5. 적막 : ① 고요하고 쓸쓸하다. ② 의지할 데 없이 외롭다.
6. 1행을 보면 선생님은 '곧장 집으로 가 방 안에 갇혀 있지 말라'고 한다. 따
라서 ④는 적절한 상상이 아니다. ⑤는 밝고 경쾌한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
는 상상이다.
7. ①~④는 자연물이다. 그러나 ⑤는 아이들을 비유적(직유법)으로 나타낸
것이다.
8. 이 글은 설명문이다. 설명문을 읽는 때에는 중요한 내용은 표시하거나 메
모하며, 전개 방식과 설명 방법에 유의하고 설명 대상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또한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정확성과 객관성을 판단
하며 읽는다.
9. [가]~[마]는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10. 이 글은 주로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왜 답이 되지 않을까?

- ① 비교, ③ 대조, ④ 분류, ⑤ 인과

11. 글 [다]에서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먼저 읽거나 보충 자료를 참고한 뒤 다시 읽을 것을 권하고 있다.
12. ㉠과 같은 방법으로 읽어야 하는 글은 논설문이다.

㉡ 왜 답이 되지 않을까?

- ① 설명문-정보 확인, ② 문학 작품-글쓴이의 생각이나 정서에 공감하며
읽는다. ④ 설명문-글쓴이가 전하려고 하는 정보를 확인하며 읽는다. ⑤
문학 작품-글쓴이의 생각이나 정서에 공감하며 읽는다.

13. ① 부사어, ② 주어, ③ 부사어, ④ 독립어, ⑤ 서술어
14. ① 명사, ② 부사, ③ 관형사, ④ 조사, ⑤ 동사
15. 지시어는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게 하므로 문장을 간결하게 만든다. 즉,
경제적인 언어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17. 관용어는 오랜 세월 동안 사용되는 가운데 의미가 하나의 단어처럼 굳어졌
기 때문에, 두 단어 사이에 다른 단어가 들어가면 관용어의 기능을 상실한다.

Plus a !

관용 표현의 효과

- 우리의 국어 생활을 풍부하게 해 줌.
-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드러낼 수 있음.
- 말할 내용을 인상 깊고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음.
- 우리 민족의 관습, 의식, 생활, 삶의 지혜, 문화 등을 느낄 수 있음.

18. ① 손을 벌리다-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구걸하다.
② 땅 짚고 헤엄치기-매우 쉽게 할 수 있다.
③ 오지랖이 넓다-남의 일에 간섭이 심하다.
④ 발이 넓다-아는 사람이 많다.
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힘을 합치면 더 쉽게 할
수 있다.

20. 소개하기에는 일정한 과정이 있다.

Plus a !

소개절의 절차

소개할 대상 정하기-소개할 대상에 대해 정보 수집하기-수집한 정보 중
적절한 내용 선정하기-대상의 특성에 맞게 내용 조직하기-인상적인 표현
을 활용하여 소개하기



5회

61 ~ 62쪽

1. ①, ② 2. ② 3. ① 4. ② 5. ③ 6. ④ 7. ③ 8. ⑤ 9. ⑤
10. ③ 11. 6·25 전쟁 또는 한국 전쟁 12. ③ 13. ⑤ 14. ④
15. 보고서(문) 16. ③ 17.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한 2차 피해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예측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작성했다. 18. 느낌표(!) 19. ① 20.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1. ① 모두 '나' 또는 '우리'의 등장이 있다.
② [가] 이별의 상황, [나] 분단 상황, [다] 일제 강점하의 상황
-  왜 답이 되지 않을까?
- ③ [가], [다]에만 해당됨
④ [나]에만 해당됨
⑤ [가]에만 해당됨
2. 화자는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과 못마땅함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3. [가] 시는 임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노래한 연모가이다. 해학적, 과장적인 것이 특징이다. ㉠에는 연쇄법이 사용되었다.
4. ②는 남북 분단의 원인이 된 '외세'를 의미한다.
5. 다른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절제되어 있다.
6. 이 글의 갈래는 수필이다. ④는 소설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7. 권위자의 견해 인용은 찾을 수 없다.
8. ⑤ 가족 간의 사랑(정)은 찾아볼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死別)의 슬픔이 드러나 있다.
9. ① 기분이나 감정 따위가 북받쳐 오르다. 젊고 혈기가 왕성하다.
② 의지나 의욕 따위가 매우 강하다.
③ 살아 있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정 따위로 연결되다.
④ 조금도 인정이 없다.
⑤ 가족의 소중함. 혈육의 정이 깊음을 이르는 말이다.
10. 이 글은 '한술밥' 문화가 우리의 끈끈한 가족주의를 형성했음을 땀 문화와 대조시켜 진술하고 있다.
11. "칠월 중순 북촌택은 아기를 낳았다.", "전쟁이 일어난 지 스무 날이 되었고 이웃들은 모두 피난 짐을 싸고 있었다.", "공비들하고 총싸움하듯이 그렇게 싸우는 곳이에요?", "그것보다 몇 갑절 더 위험한 곳이야."
→ 이를 종합해 보면 이 작품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은 '6·25 전쟁'임을 알 수 있다.
12. ㉡ 공비 : 공산당의 유격대
13. 제시글의 후반부에 보면 마을 사람들은 피란길 생각을 하면서 일손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전쟁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 ① 일선(적과 맞서는 맨 앞의 전선으로, 최전선)이라는 말을 통해 확인된다.
14. 정 씨가 국가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정 씨는 입대 통지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전쟁터로 가고 있다.
16. 보고서의 가장 끝에는 조사자의 의견이나 소감 등을 제시해야 한다.

18. Plus a !

문장 부호의 종류

- 온점(.):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는 문장의 끝, 어떤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는 문장의 끝,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고 권하는 문장의 끝
 - 물음표(?): 궁금한 것을 물어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의 끝, 선택을 요구하는 문장의 끝
 - 큰따옴표(" "): 대화로 된 문장이나 문장 가운데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 남의 말을 인용할 때
 - 작은따옴표(' '):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때, 마음속으로 생각한 말을 표현할 때
19. ① 매다 :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다. / 매다 : 끈이나 줄의 두 끝을 엮고 잡아당기어 풀어지지 않게 마디를 만든다. 묶다.
② '삼가다'가 기본형이므로 '삼감시다'가 맞다.
③ 벌이다 :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 / 벌리다 : 둘 사이를 넓히거나 멀게 하다.

- ④ 띠다 : 빗줄이나 색채 따위를 가지다, 감정이나 기운 따위를 나타내다. / 띠다 : '뜨이다'의 준말, 눈에 보인다.
⑤ 가르치다 : 지식이나 기능, 이치 등을 깨닫게 하다. / 가리키다 : 손가락 등으로 어떤 방향을 나타내 보인다.

6회

63 ~ 64쪽

1. ① 2. ⑤ 3. ④ 4. ② 5. 따뜻해진 조약돌 또는 따뜻한 돌멩이
6. ③ 7. ⑤ 8. ④ 9. ④ 10. ③ 11. ① 12. ① 13. ② 14. ④
15. ⑤ 16. ④ 17. ③ 18. 등교 시간에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건의하기 위해서이다. 19. ⑤

1. 차마 제의를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2.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의 제의에 얼떨떨함 - 친구 집에 가는 도중에는 집은 멀고 날씨는 추워서 제의를 받아들인 것을 후회함 - 도착한 뒤에는 친구 동생과 즐겁게 놀 - 돌아올 때 친구 아버지의 따뜻한 돌멩이를 받고 감동함
3. 나머지는 가난한 형편을 알려 주는 것이나 ④는 친구 아버지의 자상함과 나의 즐거움을 나타낸 것이다.
4. 처음 찾아간 '나'를 대하는 태도나 돌아갈 때 추위에 떨 '나'를 위해 따뜻해진 조약돌 두 개를 주는 것으로 보아, 자상하고 남에 대한 배려심이 있으며 마음씨가 따뜻함을 알 수 있다.
5. 이 글의 주제는 '가난하지만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가족으로부터 얻은 감동'이다.
6. 시 감상 방법을 통해 영화 감상 방법을 쉽게 전달하고 있다.
7. 자극적인 영상과 대사로 눈과 귀를 자극하는 영화는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없다.
8. 구성 단계상 대단원에 해당한다.



왜 답이 되지 않을까?

- ① 하강, ② 전개, ③ 절정, ⑤ 발단

10. 말을 할 수 없어 전화도 못하고 글을 쓸 줄 몰라 편지도 못 쓸 할머니에게 혹시 무슨 좋지 않은 일이나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며 하는 말이다.
11. 편지글(서간문)은 일정한 형식이 있다.

 Plus a !

편지의 형식

- 서두 : 받는 사람의 호칭, 계절 인사와 안부
 - 본문(사연) : 편지를 쓰게 된 동기와 목적
 - 결미 : 끝인사, 편지를 쓴 날짜와 보내는 사람의 이름
12. 비록 감옥소에 수감되지만 거들먹거리며 개선문으로 들어가는 듯하다고 하였다.
13. ㉠ 교도소나 구치소에 갇힌 사람에게 옷, 음식, 돈 등을 들여보내는 것. '옥바라지'로 순화
㉡ 여름에 입는 홑옷. 계절감을 드러낸다.
㉢ 교도소를 지칭함
㉣ '수감'을 속되게 이르는 말
㉤ 죄수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머리에 씌우는 등근 통 같은 기구
→ ㉠, ㉢, ㉣, ㉤을 통해 교도소에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14.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표현하였다.
15. ㉡~㉣는 글쓴이 자신의 어머니를 지칭하나 ㉤는 '조국'을 의미한다.
16. ④는 문자 언어의 특징에 해당한다.
⑤ 반언어적 요소 : 속도, 강세, 억양, 어조 등
비언어적 요소 : 몸짓, 손짓, 표정, 시선 등
17. 자기 소개서는 자신을 최대한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므로 지나치게 자신을 낮춰 쓸 필요가 없다.
19. 문제의 사안이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따져서 중요 사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